

만해 한용운 시의 인지시학적 연구*

양병호(전북대학교)

1. 서론

만해 한용운의 시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다양한 시각에서 이루어져 왔다.1) 또한 그 질과 양의 측면에서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만해의 시집 『님의 침묵』에 대한 연구를 통해 만해의 생애사적 측면, 만해시의 문학적 특징, 문학사적 가치, 문학적 영향관계, 개별 작품의 내재적 특징 등이 치밀하고 타당성 있게 밝혀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학 작품의 실체를 완벽하고 온당하게 해석, 평가하는 작업은 접근방법의 다양성에 따라 더욱 풍부해진다. 왜냐하면 문학 작품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불변하고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그것에 접근하는 독자의 시공간적 상황에 따라, 독자의 접근하는 방향에 따라 그 의미를 역동적으

* 이 연구는 전북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음.

1) 방법론 측면에서 보더라도 만해시는 역사주의 연구방법, 형식주의 연구방법, 문학사회학적 연구방법, 비교문학적 연구방법, 사상사적 연구방법 등 전방위적으로 접근되었다. 지금까지 만해 문학을 대상으로 연구한 논저는 400편을 상회하고 있다. 홍필기, 『한용운 시의 님과 여성성 연구』, 충북대 석사, 1997.

로 변화하여 전달하는 유기체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의미를 지닌 문학 작품을 고정화 도식화 되지 않은 상태로 그 실체에 접근하는 데에는 여러 방면에서의 조망이 필요하다.

본고는 이와 같은 기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인지시학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만해시를 새롭게 조망하고자 한다. 인지시학적 방법론이란 아직 정교하고 치밀한 시학으로 성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인지의미론적 분석들을 기본으로 하여 시작품의 인지체계나 상상력의 구조를 밝히는데 유용한 방법론이다.²⁾

인지의미론이란 전통적 의미론인 객관주의 의미론과 대립된다. 그리하여 미리 결정되거나 고정화된 코드에 따라 언어의 의미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 주체자의 주관에 따라 의미를 인지하려 한다. 왜냐하면 언어를 통한 의미의 이해에는 이해 주체자의 체험, 환경 세계, 역사성, 지식 등의 개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지 의미론은 이해 주체자의 주체적인 의미의 구축과 탐색을 통하여 창조적 이해에 도달하려 한다.

이와 같은 인지의미론을 통하여 문학 작품을 이해하는 것은 좀 더 과학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문학 언어가 본질적으로 안고 있는 의미의 불완전성에 대한 해석·이해에 인지의미론적 접근 방식이 적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문학에 사용되는 언어는 전통적이라 할 수 있는 단순한 표현 전달의 매체로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 기능을 통해서 언어 그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무한한 의미 창조의 대상으로서도 기능한다. 다시 말해 언어는 그것을 표현 전달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동체의 문화를 스스로의 구조에 반영하는 상징 체계이다. 따라서 의미 창조의 대상이 되는 문학 언어에 주체적이고 주관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작자와 독자의 체험, 환경 세계, 역사성, 지식 등의 개입으로 인한 인지적 태도를 중요시하는 인지의미론적 방법의 적용이 필

2) 인지시학을 적용한 연구성과로는 양병호, 『한국현대시의 인지시학적 이해』(태학사, 2005), 이강하, 『만해 한용운 시의 은유 구조 연구』(전북대 석사, 2005), 이승철, 「정지용의 <유리창 1> 연구」(『국어문학』45집, 2008) 등이 있다.

요할 뿐만 아니라 적절할 것이다.

인지의미론에서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는 ‘카테고리’이다. 카테고리화는 무질서한 세계에 대해 경험을 통하여 질서를 부여하는 인지 방식이다. 인지 주체가 신체성에 입각한 경험이나 상상력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 카테고리를 형성하는 데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카테고리화는 인간의 경험과 상상력 양쪽과 관계가 있다. 즉 경험의 측면에서는 지각, 신체 활동, 문화 등이 개입되고, 상상력 측면에서는 메타포, 메토니미 등과 관련되어 카테고리화가 이루어진다. 카테고리의 개념을 바꾸면 우리의 정신 개념이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세계에 관한 우리의 이해 방식 까지도 바뀌어진다.

카테고리의 개념을 시의 이해에 적용한다는 것은 우선 시의 의미를 파악함에 있어 어휘론적 접근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해당 시어의 의미적 범주에 대한 이해에 있어 주관적인 의미 부여를 하겠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카테고리화가 신체성에 입각한 경험이나 신체화된 상상력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휘의 분석과 이해 역시 이해자의 주관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같은 어휘론적 분석을 통하여, 우리는 시의 의미 구조의 이해에 있어 다양성과 특수성, 구체성과 현실성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유동적이고 주관적인 인지의 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카테고리화에 중요한 개념은 ‘가족적 유사성’이다. 카테고리의 성원은, 카테고리를 정의하는 공통 속성을 모든 성원들이 갖지 않더라도 가족적 유사성에 의해 서로 관련된다는 생각이다. 이와같은 가족적 유사성의 개념은 시의 이미지나 메타포, 혹은 상징의 분석에 있어 동일화(identification)의 관점에서 의미론적 계열체 형성을 인지하고 설명하는데 유용한 설득력을 제공할 수 있다.

인지 모델이란 우리가 사물을 조직화하거나 카테고리 형성에 대해 추론을 할 때 이루어지는 인지상의 특정한 유형화라고 할 수 있다. 즉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개념 혹은 언어에 대해 인지할 때, 거기에는 기본 레벨

로서의 인지 모델이 반영되어 이루어진다. 말하자면 우리가 세계의 사물·현상을 인지할 때 일어나는 주관적이고 신체화된 상상력에 의거하여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카테고리화 하는 방식이나 모델이다. 따라서 시인들의 의미 조성의 구조 즉 텍스트를 파악함에 있어서도 역시 ‘신체화된 상상력’과 ‘인지모델’의 개념을 원용함으로써 시인들의 상상력의 구조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시의 이해와 감상이 정치하고 미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미지 도식이란 인간의 신체운동, 대상의 조작, 그리고 지각적 상호작용에 되풀이 나타나는 패턴이다. 우리가 이해하거나 추리하거나 할 수 있는 의미 있고도 서로 결합된 경험을 갖기 위해서는, 행동, 지각, 개념 작용이 패턴과 질서를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도식이란 이런 동적인 질서부여의 활동들에 갖추어지는 반복되는 패턴, 형, 규칙바름을 말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이미지 도식을 통하여 우리는 환경세계에서의 혼돈스러운 신체적 경험에 질서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의미를 이루어내기도 한다.

한 시인에게 있어 그의 작품의 통일적 구조는 그의 개인적인 시적 체함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미지 도식들은 개념화된 이미지나 유형적인 감각 및 시대의 공통성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할 것이다. 한편 개인으로서의 한 시인이 지닌 시의 통일적 구조, 즉 특수한 이미지, 개별적인 감각과 정서 등을 탐구하는 데에도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상 작품에 기저해 있는 상상력의 구조를 이미지들의 다양한 도식으로 파악함으로써 의미 구조에 대한 선명성의 효과를 거둬와 동시에 유형화의 차원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³⁾

따라서 본고는 위에서 개략적으로 소개한 인지시학의 방법론을 만해시에 원용하여, 만해시의 인지체계와 상상력의 구조를 고찰할 것이다. 그리하여 본고는 화자인 ‘나’와 사랑의 대상인 ‘님’의 성격, 그리고 화자가 시적

3) 인지시학에 대한 기본 개념과 용어 등은 인지의미론에 힘입은 바 크다. 이러한 과정과 절차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양병호, 『한국현대시의 인지시학적 이해』, (태학사, 2005)를 참조 바람.

대상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으며, 그것들이 어떻게 범주화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본고는 만해시의 의미 구조와 문학적 성을 치밀하게 분석해 낼 것이다.

2. 만해 시의 인지시학적 고찰

2.1. 소멸과 생성의 변증법적 인지 체계

만해시는 사라지거나 소멸하는 것들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출발한다. 시적 화자는 시적 대상의 소멸에 대한 안타까움과 미련의 정서를 표출한다. 만해시에서 소멸의 시적 대상은 ‘님’으로 대표된다. 그러나 화자로부터 님이 떠나간 원인과 이유는 구체적이거나 직접적으로 표출되어 있지 않다. 다만 님이 떠나갔다는 사실과 그로 인한 화자의 정서적, 심리적 반응만이 드러나 있다. 예컨대 떠남과 소멸의 인과관계는 밝혀져 있지 않고, 님이 떠나버린 현실적 상황과 그에 대한 현실 인식, 그리고 자아의 내면적 상황만이 토로되고 있는 것이다.

님은갓습니다 아아 사랑하는나의님은 갓습니다
푸른산빛을깨치고 단풍나무숨을향하여난 적은길을 거러서 참어떨치고 갓습니다
黃金의 꽃가터 굶고빛나든 옛盟誓는 차디찬찌꺼기되어서 한숨의微風에 나
러갓습니다
날카로운 첫'키스'의追憶은 나의運命의指針을 돌너노코 뒤스거름쳐서 사라
갓습니다
나는 향기로은 님의말소리에 귀먹고 쫓다은 님의얼굴에 눈머릿습니다
사랑도 사람의일이라 맛날째에 미리 찌날것을 염녀하고경계하지 아니한것
은아니지만 리별은 뜻밖의일이되고 놀난가슴은 새로운숨에 터집니다
그러나 리별을 쓸데없는 눈물의源泉을만들고 마는것은 스스로 사랑을깨치
는것인줄 아는까닭에 것잡을수업는 숨의힘을 옮겨서 새 希望의 정수박이에
드러부엿습니다
우리는 맛날째에 찌날것을염녀하는것과가티 찌날째에 다시맛날것을 밋습
니다

아 님은갓지마는 나는 님을보내지 아니하얏습니다
제곡조를못이기는 사랑의노래는 님의沈默을 힘싸고돕니다

「님의 沈默」

이 작품은 님이 떠나갔다는 사실에 대한 정보와 그로 인한 화자의 정서적 상태, 그리고 현실적 상황과 처지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적 면모를 드러내는 의미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 시에서 핵심적인 의미 명제는 첫째, ‘님은 갔다’이고, 둘째,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다’이며, 셋째, ‘우리는 만나는 한편 이별한다’이다. 궁극적으로 만남은 이별을 전제하고 이별은 또 다른 만남을 예비한다는 인생의 진리에 대해 형상화하고 있다. 예컨대 소멸과 생성의 변증법적 우주 질서를 삶과 관련하여 설파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가다’는 가족적 유사성(family resemblances)을 지닌 시어 ‘날라가다, 사라지다, 떠나다, 이별, 티끌, 한숨, 슬픔, 눈물’ 등과 의미론적 계열체를 형성하면서 소멸의 의미를 중첩 확장한다. ‘만남’ 역시 가족적 유사성을 지닌 ‘황금, 맹세, 키스, 희망’ 등과 의미론적 계열체를 형성하면서 생성의 의미를 확장 심화시킨다. 시적 화자는 님과 ‘나’의 관계를 헤어짐과 만남의 관계로 파악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법을 우주의 질서 아니면 인생의 숙명으로 이해하고 있다.

여기서 화자는 소멸의 구체적인 인지 대상으로 ‘헤어짐’을 선택하고 있다. 그 헤어짐은 시적 화자와 동일한 공간에 존재하던 ‘님’이 ‘나’로부터 멀리 벗어나는 상황으로 인지하는 특성을 보인다. 그래서 화자로부터 ‘님’의 떠남은 용기 도식(container schema)의 ‘안에서 밖으로’의 신체화된 상상력과 긴밀한 관련성을 갖는다. 아울러 ‘님’의 떠남은 ‘길’의 이미지 도식(image schema)을 환기한다. 그리고 이러한 도식의 바탕에는 ‘인생은 여행이다’라는 기본개념은유(basic conceptual metaphor)가 깔려 있다.⁴⁾

화자의 ‘님’의 떠남에 대한 인지는 소멸의 인지모델(cognitive model)로 수렴된다. 예컨대 ‘님’의 떠남 즉 소멸은 ‘푸른 산빛을 깨치고’에서처럼 일

4) G. Lakoff/M.Turner, 이기우/양병호 역, 『시와 인지』, 한국문화사, 1996. 5쪽.

정한 덩어리를 분쇄하는 것으로 인지되거나,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에서처럼 역시 분쇄 산포되는 것으로 인지된다. 나아가 온도 측면에서 만남이 따뜻한 정서를 내포 함축하는 것이라면 헤어짐은 ‘차디찬’ 심리를 반영하는 인지 성향을 보인다. 이러한 인지의 바탕에는 ‘행복은 따뜻하고 불행은 차갑다’라는 기본개념은유가 자리잡고 있다.

만해시에서 님은 부재하거나 ‘나’로부터 떠나간 존재로 드러난다. 그런데 만해시에서 죽음과 이별의 차이는 상태의 변화냐, 존재의 변화냐에 의해서 판별된다.⁵⁾ 그리하여 만해시에서 죽음과 이별은 각 시편에 따라 상태 혹은 존재의 변화 측면의 의미적 질량에 따라 달리 드러난다. 이 시에서 ‘님’은 나로부터 떠나간 상태의 변화 측면이 강한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별의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이 작품은 이별/소멸로부터 출발하지만 이면에 만남/생성의 인지 모델이 자리잡고 있다. 물론 그러한 만남/생성에 대한 의미는 현실적 상황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고 의지적이거나 이상적 상황으로 드러난다. 예컨대 님과 나의 관계는 현재 이별/소멸의 상태이지만 화자는 심리적으로 만남/생성을 회구한다. 그 만남/생성은 화자의 ‘견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希望의 정수박이에 들어’붓는 적극적인 심리적 행위와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는’ 관념을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 하였다’는 역설적 의지를 통해 만남/생성을 지향한다.

리별은 美의創造입니다

님이어 리별이아니면 나는 눈물에서죽었다가 우슴에서 다시사러날수가 업습니다 오오 리별이어

「리별은美의創造」중에서

5) 이강하, 『만해 한용운 시의 은유구조 연구』, 전북대 석사, 2005. 53쪽

사랑의리별은 리별의反面에 반듯이 리별하는사랑보다 더큰사랑이 있는것이다
「리별」 중에서

그럼으로 만나지안는것도 님이아니오 리별이엿는것도 님이아닙니다
「最初의님」 중에서

인용시에서 역시 이별은 단순한 헤어짐이나 소멸의 정서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역설의 변증법을 통해 새로운 만남/생성의 원인으로 드러난다. 이별은 미의 창조이거나, 이별의 반면에 만남을 예비한 더 큰 사랑이 존재한다고 인지하는 이러한 사유 체계는 만해 시집 『님의 沈黙』의 골간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이별/소멸로부터 만남/생성으로의 변증법적 인지 체계는 동양 특히 불교적 사유 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관념이다. 이 시에는 화자의 의지적 태도로 인한 회자정리의 관념이 표상되어 있다. 그리고 이 관념의 기저에는 ‘인생은 여행이다’ 라는 기본개념 은유가 깔려 있다. 왜냐하면 여행은 사람과의 만남과 헤어짐이 반복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은유는 역시 길의 이미지 도식에 대한 우리의 신체화된 상상력에 기인한다.

만해 시집의 상상력 구조에는 이와 같은 소멸과 생성의 변증법적 인지 체계가 근간을 이룬다. 그것은 물론 회자정리라는 불교적 사유 체계에 힘입은 바 크다. 말하자면 만해시의 사유 구조에는 시작과 끝이 영원히 반복되어 진행되는 연기론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2.2. 세속과 신성을 합일하는 역설의 인지 체계

한편 만해시에는 이원론적 세계관이 주요한 사유 체계 및 인지 체계로 기능하고 있다. 만해 시집 『님의 沈黙』은 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 형상화하고 있다. 그런데 ‘님’은 신성성을 지닌 존재로, ‘나’는 세속성을 지닌 존재로 대표된다. 그동안 만해시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님’의 상징성과 합

축적 의미에 대해 연구해왔다.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집약하면 ‘님’은 다양한 내포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여 ‘님’은 연구 방법론 혹은 연구의 코드에 따라 단일한 함축 의미를 지닌 조국, 민족, 불타, 연인 등으로 논의되었다. 또한 시적 화자 ‘나’가 그리워하는 복합적 의미를 지닌 대상으로 주장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님’의 성격과 함축 의미에 대한 거의 모든 논의는 「군말」⁶⁾을 분석과 예증의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군말」 중의 “「님」만 님이 아니라 괴룬것은 다 님이다. -(중략)-님은 내가 사랑할 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나라- (후략)-”를 통해 님의 성격과 정체 혹은 ‘님’과 ‘나’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여기서 ‘님’은 화자인 ‘나’의 ‘괴루는’ 행위와 자세에 의해 규정되는 상대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괴루는’의 대상인 ‘님’은 ‘나’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역으로 ‘님’ 역시 ‘나’를 사랑함으로써 ‘님’과 ‘나’는 상호 존중하는 관계이기도 하다.

다음 작품을 통해 ‘님’과 ‘나’의 속성과 그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분석하기로 한다.

바람도엿는공중에 垂直의波紋을내이며 고요히써러지는 오동님은 누구의
발자취임닛가
지리한장마뒀해 서풍에몰려가는 무서운검은구름의 터진틈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하늘은 누구의얼굴임닛가
꽃도엿는 김혼나무에 푸른이끼를거쳐서 옛타워의 고요한하늘을 슬치는 알
수수엿는향기는 누구의입김임닛가
근원은 알지못할곳에서나서 뚝뚝리를울리고 가늘게호르는 적은시내는
구벽구벽 누구의노래임닛가
련꽃가튼발꿈치로 갓이엿는바다를밟고 옥가튼손으로 꽃엿는하늘을만지면
서 써러지는날을 곱게단장하는 저녁놀은 누구의詩임닛가
타고남은제가 다시기름이됩니다 그칠줄을모르고타는 나의가슴은 누구의

6) 「군말」은 시집 『님의沈黙』에 대한 일종의 ‘시에 대한 시, 언어에 대한 언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작용하고 있는 메타텍스트의 기능을 한다. 이어령, 『시 다시 읽기-한국의 시의 기호론적 접근』, 문학사상사, 1997, 249쪽.

이 작품의 시제 ‘알 수 없어요’처럼 ‘님’은 그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자연물을 통해 은유화 되어 있다. ‘님’을 은유화 하는데 사용된 자연물은 ‘오동잎, 하늘, 향기, 시내, 저녁놀’로 가족적 유사성을 통해 계열화되어 있다. 화자의 ‘님’에 대한 인지는 자연물 표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속성은 맑고 순수하며 긍정적인 인지 모델들이다. 한편 그 자연물들은 각 행에서 반복되는 동일한 통사구조인 ‘누구의 발자취, 얼굴, 입김, 노래, 시’ 등으로 ‘누구/님’의 은유임을 적시한다. 만해의 시 「알 수 없어요」는 화자인 ‘나’가 알 수 없는 대상인 ‘누구/님’을 신체화된 상상력을 통하여 인지하는 과정을 정교하게 구조화해놓은 작품이다. 그 상상력 체계는 신체화된 상상력을 통하여 인지하는 ‘누구’가 ‘--에서 --으로’ 이동해가는 ‘길도식’으로 드러난다.⁷⁾

그리고 ‘누구/님’은 동작과 상태의 비범함을 통해 신성의 속성을 드러낸다. 예컨대 ‘누구/님’의 발자취인 오동잎은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짐’으로써 일상적인 상황을 벗어나 특수한 상황을 제시한다. 바람이 부재하는 공간은 현실성을 벗어나 신성성을 띄기 때문이다. 이는 ‘오동잎’으로 인지된 ‘누구/님’이 성스러운 곳에서 ‘나’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속된 곳으로 하강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내는 자아의 확인 혹은 자아 동일화라 할 수 있다.

역시 ‘누구/님’의 얼굴인 하늘은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 언뜻 보임’으로써 상시적이 아니라 희귀한 상황임을 암시한다. 또한 하늘은 시간과 공간의 차원에서 무한성과 영원성을 함축함으로써 신성성을 드러낸다. 결국 이 시행은 ‘누구’가 ‘검은 구름’으로 언표된 비극적 공간에서 ‘푸른 하늘’로 형상화된 긍정적 미래 공간으로 수평 이동해가는 ‘--에서 --으로’의 길 이미지 도식으로 인지된다.

7) 양병호, 앞의 책, 88쪽 참조.

또한 ‘누구/님’의 입김인 향기는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탑 위의 고요한 하늘을 스침’으로써 신비성과 역사성을 드러낸다. 왜냐하면 ‘탑’은 유한하고 저속한 지상을 벗어나 무한과 신성을 표상하는 하늘을 지향하려는 인간들의 상징물/매개물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향기’는 인간들의 염원 혹은 소망인 지상의 탑 위에 거처한 초월적이고 명상적인 하늘을 스치는 ‘입김’이다.

‘누구/님’의 노래인 시내 역시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부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름’으로써 신비적으로 인지되고 있다. 근원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은 ‘누구/님’에 대한 신비감은 물론이려니와 그것을 알 수 없는 ‘나’의 한계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 행 역시 ‘시내’로 은유화된 ‘누구/님’이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어디론가로 흐르는 길 도식이 자리잡고 있다.

‘누구/님’의 시인 저녁놀도 ‘연꽃같은 발꿈치로 가이없는 바다를 밟고 옥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날을 곱게 단장함’으로써 광대무변한 신비성을 드러낸다. 즉 ‘누구/님’의 발과 손이라는 신체 조직으로 바다와 하늘을 단장하는 신체화된 상상력을 통해 이 작품은 화해로운 시공으로 수렴된다.

이 작품은 시적 화자인 ‘나’에게 알 수 없는 존재인 그 ‘누구/님’을 이처럼 신체화된 인지 체계와 은유적 상상력을 통해 신성성으로 표상하고 있다. 한편 인지 주체자인 ‘나’는 ‘님’의 정체/존재를 알 수 없는 세속적인 자아로 드러나 있다. 그러나 ‘나’는 신성성을 지닌 ‘누구/님’을 향한 동경과 존경의 자세를 지니고 있다. 이는 물론 세속적인 자아로부터 신성성을 지닌 ‘님’을 지향하고자 하는 열망과 욕망 때문이다. 그러한 존재적 속성은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로 표상되어 있다. 예컨대 ‘나’는 약한 등불로 ‘누구/님’을 향해 타오르는 존재인 것이다.

세속적 존재인 ‘나’가 신성한 존재인 ‘님’을 동경하여 동일화하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낸 이 작품은 역설의 인지체계를 통해 합일의 경지에 다다

르고 있다. 그것은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라는 존재론적 변화의 역설을 통해 성취되고 있다. 즉 타버리는 자기 소멸과 다시 기름이 되는 자기 환생은 우주의 원리인 끊임없는 순환의 길 도식으로 드러난다. 여기서 세속적 존재인 '나'와 '나'가 지키는 신성성을 띤 '누구'의 존재 방식이 동일한 존재 순환의 길 도식으로 합일되면서 자연의 섭리 속으로 수렴된다.

天國의音樂은 님의노래의反響입니다. 아름다운별들은 님의눈빛의化現입니다
「님의얼굴」 중에서

님이어 당신은 百番이나鍛鍊한金결입니다
「讚頌」 중에서

당신의그림자는 光明인가요
당신의그림자는 달이너머간뒤에 어두은창에 비칩니다 그려
당신의그림자는 光明이여요
「反比例」 중에서

위의 작품들은 '님'의 성격 혹은 특성에 대한 정보를 함축하고 있다. 「님의얼굴」에서 '님'은 천국에 거주하는 존재로 드러난다. 하여 님이 부르는 노래는 '천국의 음악'으로 은유화된다. 뿐만 아니라 천상의 아름다운 별은 님의 눈빛으로 환치된다. 이는 '님'이 지닌 속성이 신성성을 띄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또한 「讚頌」에서 '님'은 '百番이나鍛鍊한金결'로 은유되고 있다. 이 역시 고귀하고 신비한 속성을 지닌 '님'을 찬송하는 화자의 인지태도가 분명하게 표출되어 있다. 「反比例」에서도 '님'은 '光明'으로 은유됨으로써 신비성과 신성성을 지닌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나는 님을기다리면서 괴로움을먹고 살이집니다
「藝術家」 중에서
나는 당신의첫사랑의팔에 안길때에 원갓거짓의옷을 다벗고 세상에나온그대로

의 발개버튼몸을 당신의압해 노았습니다 지금까지도 당신의압해는 그체에 노
아둔몸을 그대로빳들고 잇습니다

「의심하지마서요」 중에서

이웃사람도 도러가고 버리지소리도 끈쳤는데 당신의가리쳐주시든 노래를 부
르라다가 조는고양이가 부그러워서 부르지못하앗습니다

「自由貞操」 중에서

인용한 작품들은 시적 화자인 ‘나’의 속성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
다. 「藝術家」에서 ‘나’는 ‘님’을 기다리는 괴로움에 고통 받는 인간의 평범
한 원초적 모습을 보임으로써 세속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의심하지마
서요」에서 절대적 존재로 표상된 ‘님’의 사랑을 받은 ‘나’는 맑고 순수한
존재로 드러난다. 신성성을 띤 ‘님’의 사랑으로 인해 세속적인 존재인 ‘나’
는 님과 동일화되는 것이다. 「自由貞操」에서 ‘나’는 ‘님’이 가르쳐주던 노
래를 부끄럼 때문에 부르지 못하는 연약한 심성을 지닌 존재로 그려진다.
이처럼 만해시의 화자인 ‘나’는 일상적인 인간의 세속적인 모습으로 드러
난다.

만해시의 세속적 존재인 ‘나’는 신성성을 지닌 ‘님’을 동경하고 연모함
으로써 동일화를 꿈꾸거나 ‘님’의 경지에 도달하고 싶은 욕망을 노래한다.
그 욕망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하지만 화자인 ‘나’의 역설적
인지 체계⁸⁾로 인해 그러한 염원은 상상력의 범주 안에서 의지적으로 해
소된다.

2.3. 여성성을 통한 화해와 사랑의 인지 체계

만해시는 여성 화자인 ‘나’가 남성으로 표상된 ‘님/당신’을 사랑하는 관
계로 설정되어 있다. 여성인 ‘나’는 ‘님’을 향해 사랑을 갈구하거나, 님을

8) 대표적인 역설의 예를 몇 개 들면, ‘당신의 소리는 침묵이어요’, ‘사랑을 사랑이라고 하면
별써 사랑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대해탈은 속박에서 얻는 것입니다’, ‘비싼 것이 게으른 것이
다’ 등이 있다.

기다리거나, 충족되지 않는 사랑 때문에 원망하거나 한탄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모습은 시적 화자 ‘나’가 여성으로 표상됨으로써 더욱 극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킨다.⁹⁾ 이는 기존 연구자에 의해 일찍이 만해시의 여성주의로 연구된 바 있다.¹⁰⁾ 만해시의 화자가 여성으로 설정됨으로써 사물과 세계에 대한 인지 성향과 태도는 여성주의로 범주화된다.

먼저 만해시에는 ‘남’과 ‘나’의 사랑의 완성을 추구한 인지모델이 원형(prototype)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본다면, 여성 화자인 ‘나’가 추구하는 사랑의 속성은 여성적인 인지 특성을 갖는다. 그리하여 만해시의 사랑을 추구하는 인지 태도는 소극적, 수동적, 암시적, 겸양적인 성향을 보인다. 물론 세계와 사물을 인지하는 인지도식, 카테고리화, 이미지도식, 신체화된 상상력도 여성의 범주로 묶인다.

남들은 나더러 時代에뒤진 늙은女性이라고
 駭죽거립니다 區區한眞操를지킨다고
 「自由眞操」 중에서

당신의 最後의接觸을바든 나의입설을 다른男子의입설에
 대일수는 업습니다
 「因果律」 중에서

야속한 봄바람은 나는꽃을부러서 경대위에노입니다
 그러
 「海棠花」 중에서

오서요 당신은 오실때가되얏습니다
 어서오서요
 당신은 나의품에로오서요
 나의품에는 보드러운가슴이 있습니다
 「오서요」 중에서

당신의 사랑의동아줄에 휘감기는 體刑도
 사양치안꼇습니다
 당신의 사랑의酷法아래에
 일만가지로服從하는 自由刑도
 맞꼇습니다

9) 이에 대한 연구로는 김재홍, 『한용운문학연구』(일지사, 1982)와 오세영, 「마조히즘과 사랑의 실제」(『한용운연구』, 새문사, 1982)이 있다.

10) 김재홍은 만해시의 여성주의가 1.여성운과 존칭보조어간, 2. 여성주체가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 3. 여성적 상관물, 4. 여성적 정감 혹은 태도, 마조히즘 등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인용시들은 만해시의 여성적 인지 성향이 드러난 부분들이다. 시 「自由貞操」는 여성 화자가 타인들의 ‘時代에 뒤진 낡은女性’이라는 평가에 대해 ‘자유정조’라는 역설적 개념으로 사랑의 새로운 가치를 역설하고 있다. 「因果律」은 여성의 정조 관념을 통해 순수한 사랑의 지속과 순결성을 강조하고 있다. 「海棠花」는 님을 기다리는 여성 화자가 시간의 허무한 경과를 아쉬워하고 한탄하는 여성적 심정을 표출하고 있다. 「오서요」는 님을 기다리는 여성 화자가 자신의 가슴이 부드럽고 푸근하고 평화스러우니 어서 빨리 오기를 호소하고 권유하는 내용이다. 「의심하지마세요」는 사랑하기 때문에 님의 그 어떤 가혹한 형벌도 모두 감수하겠다는 피학적인 복종 심리가 잘 드러나 있다.

이상에서 보듯, 만해시는 여성 화자가 님을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심정을 다양하게 표출하고 있다. 그러한 설정으로 인해 화자가 인지하는 세계나 사물은 여성적 섬세함과 더불어 수동적이며 소극적인 특성을 지닌다. 즉 만해시는 여성성을 통한 화해와 사랑의 인지 체계를 보인다.

나는 나루스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흙밭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시고 물을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안으면 김흐나 엇흐나 급한여을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오시면 나는 바람을쫓고 눈비를마지며 밤에서나갓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건느면 나를 도러보지안코 가십니다 그러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줄만은 아려요
나는 당신을기다리면서 날마다날마다 닳어갑니다

나는 나루스배
당신은 행인

「나루스배와 행인」

이 작품은 님을 향한 기다림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만해시에서 ‘기다림’은 불완전하고 세속적인 자아를 완전하고 신성성을 지닌 존재인 님의 경지로 변화시켜주는 동인이 된다. 또한 그 기다림은 사랑의 완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정서는 여성의 인지 체계로 드러난다.

1연에서 드러나는 ‘나’와 ‘님’의 관계는 ‘나루스배’와 ‘행인’으로 각각 은유를 형성한다. ‘나루스배’는 안이 비어있는 형태적인 측면과 행인을 실어나른다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용기의 이미지 도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용기 혹은 비어있음은 여성의 자궁 이미지와 동일한 카테고리로 인지된다. 한편 ‘행인’은 ‘나루스배’와의 관계성에서 보면 났다가 내린다는 속성이 있으므로 다가왔다 떠나가는 남성/님의 이미지 도식을 갖는다.

나와 님에 대한 각각의 은유에서 ‘나루스배’는 용기로 ‘행인’은 내용물로서 기능한다. 그런데 나루스배는 다시 여성의 카테고리로 행인은 남성의 카테고리로 각각 인지된다. 그리고 용기와 내용물의 관계는 주어진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다. 예컨대 행인이라는 내용물은 강을 건너기 위해 나루스배에 승선했을 때 그 기능이 충족된다. 마찬가지로 나루스배라는 용기는 행인이 승선했을 때에 그 기능이 충족된다. 이러한 조건은 행인을 실어나르는 수단으로서의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행위를 넘어서 ‘기다림’이라는 능동적인 행위를 유발한다. 그리하여 용기로서의 기능을 충족하기 위해 ‘나루스배’는 행인의 도래를 갈구한다.¹¹⁾

2연은 행인/님을 태운 나루스배/나의 도강 행위에 대한 심정이 표출되어 있다. ‘당신/님’은 ‘나루스배/나’를 짓밟는 가학적 행위를 한다. 그러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과 포용과 관용의 태도로 이러한 상황을 감수한

11) 이강하, 앞의 논문, 71쪽 참조.

채 도강 행위를 성실하게 진행한다. 강 의 상황이 어떠한 악조건이라 하더라도 나룻배/나는 개의치 않고 도강 행위를 진지하게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도강 행위는 행인/님에 대한 사랑의 정신으로 표상된다. 이 사랑의 정신은 ‘사랑은 여행이다’와 ‘사랑은 전쟁이다’는 개념 은유의 맞물림으로 성립되고 있다.¹²⁾ 도강 행위는 여행으로 사상(mapping)되고, 지는 것은 전쟁으로 사상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나/나룻배는 ‘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행인의 가학적인 공격에 지면서 사랑의 완성을 위해 험난한 도강/여행을 기꺼이 수행하는 것이다.

3연은 물을 건넌 당신/행인이 다시 ‘나룻배/나’를 떠나가는 상황과 떠나 버린 님/당신을 기다리는 나/화자의 자세가 표출되어 있다. 행인의 태도는 ‘사랑은 여행이다’ 개념은유의 지배를 받고 있다. 행인은 도강이 이루어지는 승선의 순간만 지나면 사랑으로부터 떠나버리는 여행자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행인에게 ‘나룻배’는 여행 도식의 구성 요소인 휴식처, 안식처, 정거장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나룻배/나는 어떤 악조건적 상황--바람, 눈비--에서나 시간--낮밤--을 가리지 않고 행인/님을 기다린다. 여기서 행인에 대한 사랑은 ‘사랑은 헌신을 요구한다’, ‘사랑은 희생을 요구한다’, ‘사랑은 인내를 요구한다’, ‘사랑은 무조건적인 감정상태이다’ 등의 개념 은유에 의해 구조화 되어 있다.¹³⁾ 화자인 나는 삶의 완성을 위해 어떤 악조건이라도 감수하면서 님을 기다리는 숭고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 작품에는 나룻배의 기다림과 행인의 여행이 대립되어 있다. 이러한 대립적 관계는 사랑의 상대적 속성을 반영한다. 그럼에도 여성적 인지 체계를 지닌 나룻배/화자는 기다림을 통해서 행인/님을 위한 숭고한/초월적 사랑을 완성시키려한다. 즉 포용과 헌신과 인내와 관용의 여성적 인지 모델인 나룻배는 사랑의 완성을 위해 희생적 자세를 견지한다. 화해와 사랑의 완성을 위해 자기 희생을 하며 ‘날마다 날마다 넓아가는’ 화자의 기다림은 소멸의 현실을 생성의 희망으로 전환한다. 그 사랑을 향한 희망적인

12) G.레이코프/M.존슨, 노양진/나익주 역, 『삶으로서의 은유』, 서광사, 1995. 75-86.

13) G.레이코프/M.존슨, 위의 책 참조.

기다림은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아려요’에 드러난 확신으로 인해 긍정적 세계 인식을 보인다.

3. 결론

이상에서 본고는 인지시학적 방법론을 원용하여 만해시를 고찰하였다. 일종의 화자 시학을 견지하여, 화자와 님의 성격, 화자가 인지 대상을 인지하는 태도와 자세의 규명을 통해 만해시의 상상력 체계와 인지 체계를 밝혔다. 이상에서 논의된 내용을 요약함으로써 결론을 삼고자 한다.

만해시는 소멸과 생성의 변증법적 인지 체계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만해시는 님의 소멸과 생성을 기본적인 인지 모델로 삼고 있다. 그 인지 모델의 바탕에는 용기 도식과 길 도식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식의 근거에는 ‘인생은 여행이다’의 기본 개념 은유가 깔려 있다. 만해시의 이별/소멸로부터 만남/생성으로의 변증법적 인지 체계는 불교적 사유 체계에 힘입은 바 크다.

만해시의 주요한 사유 체계 혹은 인지 체계는 이원론적 세계관이다. 이원론적 세계 인지는 ‘님’과 ‘나’의 관계로 표상되고 있다. 즉 만해시는 신성성을 지닌 ‘님’을 사랑하는 세속적인 ‘나’의 갈구와 연모로 구조화되어 있다. 님과의 동일화를 꿈꾸는 화자 나의 욕망은 역설의 인지 체계를 통해 합일의 경지에 이르고 있다.

만해시는 여성 화자인 ‘나’가 남성으로 표상된 ‘님/당신’을 향해 사랑의 완성을 추구한 인지모델이 원형(prototype)으로 자리하고 있다. 여성 화자인 ‘나’가 추구하는 사랑의 속성은 여성적인 인지 특성을 갖는다. 그리하여 만해시의 사랑을 추구하는 인지 태도는 소극적, 수동적, 암시적, 겸양적인 성향을 보인다. 물론 세계와 사물을 인지하는 인지 도식, 카테고리화, 이미지 도식, 신체화된 상상력도 여성의 범주로 묶인다.

핵심어 : 인지 모델, 인지 도식, 가족적 유사성, 은유, 카테고리

〈참고문헌〉

- 김재홍, 『한용운문학연구』, 일지사, 1982.
- 로만 야콥슨, 신문수 편역, 『문학 속의 언어학』, 문학과지성사, 1989.
- 마크 존슨, 이기우 역, 『마음 속의 몸』, 한국문화사, 1992.
- 보그란데/레슬러, 김태옥/이현호 공역, 『담화·텍스트 언어학 입문』, 양영각, 1991.
- 양병호, 『한국현대시의 인지시학적 이해』, 태학사, 2005.
- 오세영, 『마쑈히즘과 사랑의 실체』, 『한용운연구』, 새문사, 1982.
- 움베르토 에코, 서우석 역, 『기호학 이론』, 문학과지성사, 1985.
- 움베르토 에코, 서우석/전지호 역, 『기호학과 언어철학』, 청하, 1987.
- 이강하, 『만해 한용운 시의 은유 구조 연구』, 전북대 석사, 2005
- 이승철, 「정지용의 <유리창 1> 연구」, 『국어문학』 45집, 2008
- 이현호, 『한국 현대시의 담화·화용론적 연구』, 한국문화사, 1993.
- 최현무 편, 『한국문학과 기호학』, 문학과비평사, 1988.
- 히라키 마사코, 김동환/최영호 역, 『은유와 도상성』, 연세대 출판부, 2007.
- G.레이코프, 이기우 역, 『인지의미론』, 한국문화사, 1994.
- Y.이계가미, 이기우 역, 『시학과 문화기호론』, 한국문화사, 1995.
- G.레이코프/M.터너, 이기우/양병호 역, 『시와 인지』, 한국문화사, 1996.
- G.레이코프/M.존슨, 노양진/나익주 역, 『삶으로서의 은유』, 서광사, 1995.
- S.D.S. Chhibber, Poetic Discourse, Sterling Publishers Private Ltd, 1987.

Abstract

A study on manhae poetry in cognitive poetics

Yang Byung Ho

This thesis contemplated a poetry of Man-Hae with methodology of cognitive poetics. In the light of a in a sense speaker's poetic in a sense, a imagination and cognition system of poetry of Man-Hae has revealed through speaker and lover's character and attitude and behaviour that how recognize a cognition object.

The poetry of Man-Hae has a dialectical recognition system of creation and disappear. Also, poetry of Man-Hae follows the basic cognition model of Lover's creation and destruction. In a grounding of cognitive model, container schema and path schema are located. Bottom of such schema, fundamental notion metaphor laid down that 'Life is a journey'. The dialectical recognition system from a separation/disappear to encounter/creation of the poetry of Man-Hae has much indebted for Buddhistic thought system.

Important thinking system or cognition system in the poetry of

Man-Hae is a dualistic view of the world. Dualistic world cognition has symbolized in a relation of 'lover' and 'I'. In other words, poetry of Man-Hae has structured in an eager desire and yearning of worldly 'I' who loves holy 'lover'. A desire of speaker 'I' who have a dreams about to be identified with 'lover' reach a stage of unity through a cognitive system of paradox.

Cognitive model that a female speaker 'I' pursues love perfection toward to a male who presented as a 'lover/you' is located by prototype on poetry of Man-Hae. Love quality that female speaker 'I' pursue, possess the characteristics of feminine cognition. Therefore a cognition attitude that pursue a love of poetry of Man-hae exhibit a tendency of humility, suggestive and passive. There is no doubt that cognitive schema, category, image schema and imagine physically are tied by the category of women.

Key words : cognitive model, cognitive schema, family resemblances, metaphor, category

이 논문은 2009년 1월 11일에 투고되었으며, 2009년 2월 3일에 심사 완료되어 2월 1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